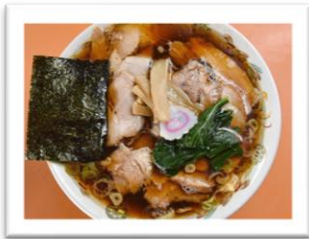


미야우치역과 미야우치 상점가

나가오카시의 역사적인 셋타야 지구는 JR 조에쓰선과 JR 신에쓰 본선의 미야우치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1970 년대에 자동차 문화가 확산되기 이전, 이 역은 많은 쇼핑객과 직장인, 노동자 외에도 미야우치와 셋타야에 남아 있는 일본술, 간장, 된장의 전통 양조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활기찬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미야우치역 인근에 위치한 옛 미쿠니 가도의 한 모퉁이에는 미야우치 상점가라고 불리는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는 20 세기 초 전성기 때는 영화관과 대중목욕탕도 있었습니다. 이 거리에는 셋타야의 사업가인 이마이 요사부로(今井与三郎)가 발명하여 1961 년에 나가오카시에 처음으로 설치된 제설용 배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제설용 배관에서는 따뜻한 지하수가 나와 도로의 눈을 녹입니다.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며 미야우치 상점가에 늘어선 점포의 수는 점차 감소했지만, 지금도 몇몇 노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상점가에는 이발소와 의류점, 쌀집, 약국, 철물점, 그리고 몇 곳의 음식점 등이 있습니다. 미야우치역 근처의 아오시마 식당은 나가오카 명물인 생강 간장 라멘의 원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리를 따라 있는 건물 대부분은 기둥을 받친 차양이 설치되어 있어, 겨울철 폭설에도 보행자들이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붕이 있는 좁은 길은 전통적인 거리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시는 현재, 시민과 협력하여 이 지역의 매력을 소개하는 사업과 이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